

고흥고, 학생대표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 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우주과학기술 인재 양성 위해 마련해 2·3학년 10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전남본부 학생 대표로 참석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전남, 경남, 대전을 연결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고흥고등학교(교장 신훈) 2, 3학년 학생 10명이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전남본부 학생 대표로 행사에 참석하였다.

학생대표로 대통령과 함께 선포식을 선언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한 3학년 객진영 학생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머나먼 미래와 같이

느껴지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가 차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허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흥우주항공경진대회 참가 및 전남과학축전, 고흥우주항공 축제에서 과학 부스를 운영하는 등 평소 과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교내외 과학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고흥고등학교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연계하여 농동

고등학교와 함께 학교간공동교육과정 '인류와 우주대항해 시대'를 개설하는 등 우주항공 관련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고흥고등학교 신훈 교장은 "학생 대표로 고흥고등학교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 2024년에도 우주항공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주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장성여중, 백설기데이 맞이 아침밥먹기 캠페인

장성여자중학교(교장 나정숙)는 지난 13일 '백설기데이'를 맞아 아침밥 먹기를 권장하기 위해 교문에서 백설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장을 비롯하여 장성교육지원청 이재양교육장, 김한중 장성군수, 고재진 장성군의회의장,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나문선지부장 외 농협조합장, RPC대표, 농업인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장성여중 학생들에게 백설기와 두유를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와 우리쌀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백설기 데이'는 사랑을 선물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화이트데이를 대신해 백설기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날로 장성군농협, 장성군, 장성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등곳길 학생들에게 백설기와 두유를 나눠주며 아침밥의 중요성과 우리쌀 소비 촉진을 홍보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장성여중 학생자치회 학생회장 3학년 정인서 학생은 뜻깊은 행사를 우리 학교에서 개최하여 자치회 학생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의미있는 학생회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나정숙교장은 "학생들에게 3월 14일이 백설기 데이로 인식되어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로 마음을 전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아침밥먹기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수권기자

함평 엽다초,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경제교육과 진로교육 실시

블록체인 기술 반영한 학교 화폐 운영

함평 엽다초등학교(교장 류재인)는 미래에 대비하는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한 학교 화폐(엽다페이)를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엽다페이월드는 전교생 모두가 참여한 학생 다모임에서 학생들의 협의에 따라 각자 맡을 역할과 직업을 정하고, 각 직업에 따른 주급을 주 1회씩 받는다. 그리고 역할을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성과급과 과태료를 통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엽다페이는 엽다페이 앱을 핸드폰이나 패드에 설치해 QR코드 인식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구리 동전 형태의 엽다코인이 갖

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생활에서 지급하는 'OO페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가상화폐이다. 학생들은 엽다페이로 QR코드 인식을 통해 학교 현관에 마련된 마트에서 원하는 학용품과 장난감, 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학생들은 엽다페이를 사용하면서 부모님들의 결제방식을 이해하며 기술의 발전이 화폐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미래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엽다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전남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선생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함평=김광훈기자

진도교육청, '모두가 안전한 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은, 지난 15일 관내 학교 통학차량 운전원·안전지도요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기주 강사(교수,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를 초청해 이루어졌으며, '어

관내 공·사립 유·초·중학교, 통학차량 운전원·안전지도 요원 대상

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시작으로, '통학차량 주요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지속적인 차량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했던 한 운전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의 역할자로서, 경각심을 갖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미선 교육장은 "진도 관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수고해주는 통학차량 운전원과 안전지도요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도교육지원청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환경 속에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